



# 대구광역시

市花 : 목련      市鳥 : 독수리  
 市木 : 천나무    캐릭터 : 패션이  
 시청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시장 : 권영진(權泳臻)



## 개 관

**연혁** 대구는 달서구 월성동에서 구석기시대 유물인 쯤돌날 석기를 포함한 유적이 확인돼 대략 2만~1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석기시대에는 북구 서변동, 중구 대봉동, 수성구 상동 등 중·소하천 충적지대나 자연대지가 주된 활동무대였을 것으로 보인다.

청동기시대에 접어들면서 금호강과 그 지류에 자연 발생 취락이 형성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생활무대가 확대함에 따라 사회공동체, 즉 부족국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즈음 달구 불(達句火) 또는 달구벌(達句伐)로 불렸다.

'대구(大丘)'라는 이름은 신라 경덕왕 16년(757년) 주·군·현 명칭을 한자명으로 고칠 때 처음 사용됐다. 현재 사용하는 '대구(大邱)'라는 한자 명칭이 조선왕조실록에 본격적으로 표기된 것은 정조 2년(1778년)부터다.

1601년에는 경상도 행정·사법·군무를 담당하는 관청인 경상감영이 들어서 정치·경제·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영남지역 중심지가 됐다. 일제 침략이 본격화한 1907년 김광제, 서상돈이 중심이 돼 '국채 1천300만원 보상 취지서'란 격문을 발표하면서 시작한 '국채보상운동'과 1960년 4·19 민주혁명의 기폭제가 된 '2·28 학생의거' 등은 나라를 위해 중요한 고비마다 빛나는 향도의 역할을 다해 온 자랑스러운 도시이다.

1981년 7월 1일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월배·성서·공산 지역을 비롯해 칠곡과 안심, 고산지역을 편입해 시역이 454.95km<sup>2</sup>

### 대구광역시 면적·가구·인구

(2015년 12월 31일 현재)

구분	면적(km <sup>2</sup> )	가구	인구(명)
합 계	883.56	982,360	2,487,829
중 구	7.06	38,294	80,928
동 구	182.19	144,403	349,728
서 구	17.33	89,896	206,028
남 구	17.43	74,949	160,852
북 구	94.07	169,568	443,119
수 성 구	76.46	165,786	451,786
달 서 구	62.34	225,889	602,641
달 성 군	426.68	73,575	192,747

\* 외국인 별도(2015년 12월 31일 기준: 외국인 수 2만1천141명)

로 확장된 데 이어 1995년 1월 1일 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됐고, 1995년 3월 1일 낙동강을 낀 달성군 전역을 편입시키면서 시역이 884.1km<sup>2</sup>로 크게 확장됐다.

**면적·인구·행정구역** 총면적은 883.56km<sup>2</sup>(전 국토의 0.9%)이며 개발제한구역이 401.35km<sup>2</sup>로 전체면적의 45.4%를 차지하고 있다. 총 인구는 249만여 명이며, 행정구역은 7자치구·1군에 읍·면·동 139개, 법정동·리 304개, 통·리 3천559개, 반 2만3천438개가 있다.

## 재 정

2016년 본예산규모는 시와 자치구·군을 합해 총 10조1천 422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8조3천376억원, 특별회계가 1조8천046억원이다. 시 본청 예산규모는 총 6조8천874억원(일반회계 5조1천427억원, 특별회계 1조7천447억원)으로 일반회계 기준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 37.9%, 일반공공행정분야 20.4%, 수송 및 교통분야 13.7%, 교육분야 13.3%, 산업·중소기업분야 4.6% 등으로 편성했다.

### 2016년도 대구광역시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회계별	2016 예산액	2015 예산액	증 감	
합 계	6,887,400	6,176,000	711,400	
일반회계	5,142,700	4,688,800	453,900	
특별회계	1,744,700	1,487,200	257,500	
공 기 업	소 계	520,700	459,400	61,300
	상수도사업	237,700	209,900	27,800
	하수도사업	217,000	201,500	15,500
	지역개발기금	66,000	48,000	18,000
기 타	소 계	1,224,000	1,027,800	196,200
	도시철도사업	348,000	400,630	△52,630
	교통사업	130,300	111,460	18,840
	의료급여기금	400,500	382,000	18,500
	산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	34,900	5,600	29,300
	중소기업육성기금	66,800	66,000	800
	광역교통시설	17,600	23,200	△5,600
	수질개선	3,000	3,300	△300
	기반시설	1,500	1,450	50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30,300	33,560	△3,260
재정비축진	600	600	-	
소방안전	190,500	-	190,500	

## 중점 추진사업

**역동적 창조경제 도시 조성으로 경제활력 제고** 대구삼성창조경제단지 착공(2015년 5월)과 C-Lab 창업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삼성-대구 간 확고한 창조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벤처창업의 체계적 지원과 기업성장 사다리 구축(150개 기업 육성) 등으로 창업 1등 도시를 조성했다. 중국 100조원 물산업 시

장 진출과 미래형 자동차산업 선도기반 구축 등으로 미래산업에 적극 투자하고, 국내외 우량기업 유치(34개사) 사회적 기업 육성(36개), 맞춤형 여성 일자리 발굴로 따뜻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 서민경제 골목상권 보호정책으로 1전통시장 1특성화, 전통시장 진흥센터를 추진해 전국 주목을 받았다.

**활기찬 도심재창조로 기분 좋은 변화 시작** 도시재생 국비지원 공모사업 선정(12개소 국비 540억원), 도시재정비촉진(뉴타운) 사업 및 도시정비사업(30개소) 추진, 폐·공가 정비 44동 완료 등으로 다양한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다. 또 성서 1·2차 산업단지 혁신·재생사업 선정, 제3·서대구·염색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해 도시 재창조의 힘찬 신호탄을 울리기도 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구형 복지안전망 구축** 전국 최초 통합 정신·치매센터를 개소(달성군 7월, 수성구 12월)하고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로 건강사회 실현을 추진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강화, 장애인등록증 발급 기간 단축(15일→4일), 긴급지원·생계구호 등 위기가구 지원(9,090가구), 달구벌복지기동대 운영 등의 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도시 실천** 시민 중심 문화 참여 확대(198회 500천 명), 시민과 함께하는 거리공연 확대(31회) 등으로 시민 참여·체감형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정책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한 재난안전실 신설(7월),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인력 풀 구성(19개 분야 218명),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노후공공시설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으로 도시 안전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했다. 또 도시철도 3호선 하늘열차 개통과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자연생태공간 복원, 평생교육을 위한 인프라 강화 등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로 글로벌 대구 기반 구축** 국제노선 증설로 대구국제공항 이용객 200만 명 시대를 열었고, 2015 세계물포럼과 지구촌 새마을지도자대회 및 2015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대구 통합대회 성공 개최, 의료관광객 유치(약 1만2천 명), 대구 대표 관광브랜드 제고 등으로 국제도시 기반을 구축했다.

**광역경제권 육성을 위한 경제공동체 건설** 대구경북 상생협력 과제 선정(5대 분야 29개 과제)과 구미-대구-경산 간 광역철도 건설 추진 등으로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을 활성화하고 대구-광주 달빛동맹 협력과제(5대 분야 23개 과제)를 선정해 민간교류를 확대했다.

**소통과 협치로 새거버넌스 모델 창조**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현장소통시장실 운영, 시민원탁회의 정례화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두드리소(민원·제안·콜 통합시스템) 구축, 120달구벌콜센터 확대 운영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으로 혁신했다.

## 산업

2016년도 국비 3조3천432억원(초광역 연계3D융합산업 육성 338억원, 로봇산업 클러스터조성 216억원, 지역 아이디어사

업화 생태계 기반조성 25억원 등)을 확보했다. 미래성장 R&D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 창조경제 견인 기반을 확보하고 노사정 평화 대화협 선포, 기업애로사항 전담부서 신설, 국가산단 및 침복단지 투자 유치(43개사 8천533억원)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

**제조업** 지역 내 제조업 비중은 2013년 22.9%에서 2014년 22.3%로 소폭 감소했으며 2014년(1~11월) 산업생산 증가율도 -3.4%로 전국평균(-0.6%)을 하회했다. '15년 수출액(11월 누계)은 64억1천만 달러로 70억7천만 달러를 기록한 2014년(11월 누계)에 비해 9.4% 감소했다. 중국경기 침체 및 메르스사태 등 대내외 악재로 고전했으나 제조업 취업자 수의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 2015년 상반기 -4.0%에 비해 2016년 하반기 -0.6%로 개선되고 있어(2015년 12월은 5.2% 증가) 향후 완만한 회복세 전망이다.

**유통** 지역 내 유통시설은 백화점 8개, 쇼핑센터 5개, 대형마트 19개와 전통시장 141개 등 총 240여 개가 있다. 전국 최초로 민·관이 협력해 기능상실 시장의 기능전환사업을 추진해 '서부시장 프랜차이즈 특화거리'를 개장했다. '1전통시장 1특성화' 공모사업에 글로벌명품시장(서문시장) 및 골목형시장(교동시장 외 4개) 선정,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 전국 최초의 '전통시장 진흥센터' 유치, 온누리 상품권 판촉(678억원) 및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또 1전통시장(18개소) 1대형마트(18개점) 전담지원제 협약체결 및 지역업체 판로를 지원하는 지역우수상품 품평회를 통해 대중소 유통업체와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프랜차이즈 사관학교를 통한 소상공인 창업교육, 스타가게 8개소를 선정해 관광알선 및 홍보, 점포컨설팅 등 골목상권 보호에 노력을 기울였다.

**금융** 금융기관 점포수는 704개이다. 총수신액은 91조2천424억원이고 총여신액은 79조7천599억원이다. 지역 중소기업 창업 및 시설현대화 자금 등 맞춤형 자금지원 시스템 구축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인력 양성과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무역** 대구의 2015년 무역은 수출 70억9천100만 달러, 수입 38억7천700만 달러로 32억1천4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원/달러 환율하락과 세계경기 부진 및 계속된 엔저 현상 등 수출여건 악화로 수출이 전년보다 7억 달러정도 감소한 약 71억 달러를 달성했다.

주요 수출품목은 지역 주력산업 생산품으로서 기계(46.2%—자동차부품 15%), 전자전기(16.7%), 섬유(15.8%), 화학공업(7.7%), 철강금속(7.4%) 등이며, 주요 수출국은 중국(21.9%), 미국(14.8%), 일본(6.5%), 베트남(6.7%), 멕시코(4.6%) 등이다(2015년 12월 말 기준).

**지역산업의 성장기반 구축** 영남권 R&D허브 조성을 위해 대구특구 내 연구소기업 12개를 신규 설립·등록, 3개 특구 전용펀드 1천250억원 조성, DGIST 학사동 건립·국립대구과학관 개관·국책연구기관 R&D사업비 확대 등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추진했다.

침복단지를 국가첨단의료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핵심 인프라 시설(4개 센터)을 준공(2013년 11월)해 장비(906종 976억원)를 구축하고 연구인력(2015년 말 178명)을 확충했다. 한국뇌연

구원 준공(2014년 11월),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준공(2015년 4월), 의료벤처기업 공동연구센터 준공(2015년 10월) 등 국책기관 6개, 의료기업 97개를 유치했다. 첨단임상시험센터, K-Medical센터, 의료기술시험훈련원 등 2016년 신규 국책기관을 유치해 동아시아 의료산업 허브 '메디시티 대구'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벤처창업 활성화 및 벤처기업 성장지원**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보육센터(경북대 등 9개소)를 운영하고,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업사업화(과제지원 46개, 창업동아리 발굴 35개, 창업강좌 32개)를 지원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및 실태조사, 벤처창업 활성화 행사)으로 지역 벤처·중소기업 성장 지원은 물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업 붐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혁신 인재양성**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LINC)사업,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 산업현장하이라인센터 운영 등 대학 우수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생산현장 애로기술해소와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제고 사업을 추진했다. 산학협력 대학 교육시스템 개선 및 산업체가 요구하는 전문·실무능력을 갖춘 융복합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취업률 향상 및 성과를 확산했다.

**지역산업 구조고도화** 기계자동차산업 분야 첨단공구산업 기술고도화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최종통과(2015년 8월) 되고, 뿌리기술지원센터 대구 구축계획이 확정(2015년 7월)돼 지역 주력산업 기술고도화 발판을 마련했다.

또 로봇혁신센터와 로봇협동화팩토리가 준공(2015년 5월)돼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자동차 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대구스트리트모터 페스티벌(2015년 5월)과 튜닝카레이싱대회(2015년 10월)는 튜닝카 마니아는 물론 일반인의 관심을 끌었다. 뿌리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나고야 멧세 2015'에 지역 금형기업과 대구시 공동관으로 참여하는 한편 국제부품소재산업전, 로봇산업전을 포함한 국제기계산업 대전을 역대 최대 규모로 성황리에 개최(2015년 11월)했다.

섬유산업분야에서는 차세대 섬유소재 개발 및 글로벌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해 슈퍼소재 융합제품 산업화사업 추진, 대구 텍스타일 Complex 건립운영과 대구국제섬유박람회 개최, 패션디자인산업 육성 및 특화산업 브랜드화를 위한 패션디자인 산업 경쟁력강화 및 우수 디자이너 육성지원, 패션의류 전시회·패션쇼 참가 지원 및 개최, 공동브랜드 쉬메릭 품질개선과 마케팅강화 등을 통해 섬유패션 지역 중소기업체 경쟁력 강화를 추진했다.

**미래형자동차 선도 도시(C-Auto) 구축** 지역 자동차 산업은 지역 생산의 22%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으로 성장했다. 전기차, 스마트카 시대에 대비하고 지역 자동차산업 지속성장을 위해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녹색 성장 선도도시 구축을 위해 2004년 전국 최초로 솔라시티 조례를 제정하고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에 힘쓴 결과, 특별·광역시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

매년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및 국제 LED&Display박람회 개최, 2004년 세계 솔라시티 총회(2012년 본부 대구 유치) 개최, 2013년 세계 에너지 총회를 개최하고 2021년 세계가스총회

(WGC2021)를 유치함으로써 청정에너지 도시 위상을 한층 더 높여가는 중이다. 또한 테크노폴리스 분산전원형 에너지자족 도시 조성, 대구국가산단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등 에너지신시장 창출로 지역 에너지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 사회

**공원·녹지** 공원·유원지 계획면적은 80.1km<sup>2</sup>로 2014년 말 현재 465개소, 52.5km<sup>2</sup>를 조성했고 50개소 18.6km<sup>2</sup>는 조성 중이다. 계획된 공원·유원지는 연차적으로 조성·정비해 시민 휴식·정서함양 공간으로 활용한다.

**상수도** 1일 164만을 생산할 수 있는 6개 정수장을 보유하고 있다. 상수도 보급률은 99.9%, 1인1일 급수량은 304ℓ이다.

**하수도** 1일 187만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 7개소가 동으로 하수처리능력 100%를 갖추고 있다. 2015년까지 4조1천 854억원을 투자해 하·폐수처리장 고도화 및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했다. 달성산업단지의 1일 1만2천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사용했으며 비점·완충처리시설 85만9천m<sup>2</sup>를 설치해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량을 대폭 감소시켰다. 지속적인 하수관개 개선사업, 도심 지천에 유지용수 공급 등 적극적인 환경시설 투자로 수질개선율(98.1%) 전국 1위를 달성했다.

**보건·위생** 의료기관 등 4천463개소,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업 5천195개소, 공중위생업 1만1천468개소, 식품위생업 5만1천341개소, 음악·게임업 3천212개소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영업질서 확립과 유통식품에 대한 감시·관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 2015 세계물포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물산업 허브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지구온난화·기후변화 적응대책 개발, 폐기물감량과 친환경자원시설 설치, 도심 생태공간조성 등 살기 좋은 환경 만들기 에 역점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만3천244가구에 11만3천 152명이다. 사회복지시설로는 생활시설 338개소와 이용시설 1천650개소(사회복지관 26개소, 경로당 1천437개소, 노인복지관 14개소, 재가노인시설 79개소, 장애인시설 91개소, 노숙인시설 3개소)가 있다.

**근로복지** 지역 산업체 노동조합은 189개에 2만9천187명이 가입돼 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근로자 체육대회,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금지급, 노사화합상 시상 등 근로자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 교육·문화

**교육** 학생들의 학력증진과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 향상 및 교육인프라 구축, 대학지원 등 교육명문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협력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수는 총 885개(대학원 포함)로 유치원 392개, 초등학교 221개, 중학교 124개, 고등학교 92개, 전문대학 9개, 대학교 4개, 대학원 32개, 방송통신 중·고 2개, 특수학교 9개 등이 있다. 학

생 수는 48만9천210여명이다.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도서관 33개가 있다.

**문화** 문화로 흥하고 흥나는 대구를 목표로 일상 속에서 문화를 만나는 문화예술도시를 구현하고자 다양한 문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에 한 획을 그은 2대 시민정신(국채보상운동, 2·28 민주화 운동)을 계승하기 위해 전시민이 함께하는 '대구시민 주간'을 추진하고, 국채보상운동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네트워크 구축과 생활문화예술 활동지원, 문화소외계층 문화복지 확대, 거리공연 확대, 문화공간 확충 등 시민참여·체감형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해 생활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술발전소 주변 예술 창작공간 조성하고 신진·청년예술가 육성지원으로 청년예술가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대구예술창작촌 건립 등 장기 사업구상을 통해 예술창작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예정이다.

**관광** 2020년 대구를 방문하는 관광객 1천만 명을 목표로 민선 20년인 2015년을 대구관광의 획기적 전환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관광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내용으로는 대구 관광 체질개선을 위한 대구만의 특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대구가 가진 매력을 잘 살린 홍보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특히 세계 관광시장에서 큰 손으로 떠 오른 중화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와 경북, 대구와 영남권 각각의 장점을 살린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과 공동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도 개발하고 있다.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12년 근대골목이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데 이어 방천시장 김광석길, 마비정 누리길 등 제 2, 제3의 한국관광의 별 선정을 추진한다. 안지랑 곱창골목의 음식테마 거리 선정에 이어 동인동 짬갈비골목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음식 테마거리 선정도 추진하고 있다.

체류하며 즐길 수 있는 관광여건을 만들기 위해 장·단기별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다양한 관광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관광자원을 재창조하고 관광객 1천 만명 달성을 위한 대구관광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도 추진 중이다.

**체육** 건강 100세 시대를 맞아 생활의 활력소를 얻고 스포츠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각종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 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과 찾아가는 장애인 체육 서비스 운영으로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대구국제마라톤 대회, 전국 마스터즈실내육상경기대회 개최, 2017 세계마스터즈 실내육상경기대회의 준비 등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2만4천석 규모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야구장 건립, 북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대구 사격장 클레이 사격시설 교체를 완료하고 시민운동장 주 경기장 리모델링 등 생활 체육 수요를 반영한 체육 인프라 구축으로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스포츠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과학·기술** 국가 대형 프로젝트인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한 국뇌연구원 건립(2014년 12월 준공)과 신정부 대선공약사업으로 채택된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및 차세대 SW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2015세계물포럼 개최 등을 통해 지역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기반 확충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의회활동

### 원구성

〈의 장〉 이동희

〈부의장〉 김의식, 정순천

〈정당별 의석〉 새누리당 29명, 더불어민주당 1명이다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두고 있다.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외에 윤리특별위원회,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 추진 특별위원회, 남부권 신흥항 유치 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 축제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2015년도 시의회는 정례회 2회 59일간, 임시회 6회 77일간으로 총 8회 136일간의 회기를 가졌다. 회기 내에 8회 21명이 28건의 시정질문과 14회 21명이 43건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 인천광역시

道花 : 장미 市鳥 : 두루미

市木 : 목백합

시청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시장 : 유정복(劉正福)



## 개관

**연혁** 인천에서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문학산, 계양산 등에서 발견된 각종 석기류로 보아 신석기 시대 이후부터였을 것으로 보인다. 시내 학익동, 주안동, 문학동 등에 지석묘(支石墓)가 분포되어 있어 청동기시대에는 부족세력이 자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문헌상으로 삼국사기 지리지(三國史記 地理誌) 등에 의하면 인천은 삼국시대 초기에는 백제에 속해 미추홀(彌鄒忽)이었으며, 고구려시대에는 매소홀현(賈小忽縣)이 설치됐다. 진흥왕 때 신라의 영토가 됐고 통일신라시대인 경덕왕 16년(757년)에 소성현(邵城縣)으로 개칭되어 울진군의 영토가 됐다.

고려시대에는 소성현이 수주(樹州)에 속했다가 숙종(1096~1105년)조에 모후 인예태후의 출생지라 해 경원군(慶源郡)으로 개칭 승격해 인종조(1122~46년)에 모후 출생지라 해 인주(仁州)로 다시 승격됐으며 공양왕 2년(1390년)에 칠대어향(七代御鄉)이라 해 경원부(慶源府)로 승격 개칭됐다.

조선조 들어 태조 원년(1392년)에 경원부가 인주로 환원됐다